

아파트 가정집에 침입,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털 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들을 강제로 폭행해온 조대형(20·부천시 심곡3동 75-6)씨와 나아무개(18·부천시 심곡3동), 김아무개(19·부천시 소사동)군 등 3명을 강도강간·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박주언(21·부천시 심곡3동 43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달 23일 새벽 2시30분께 부천시 남구 소사2동 8다방에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다방안에서 잠자던 여주인 최아무개(30)씨와 최씨의 남동생을 흉기로 위협, 금목걸이 등 66만3천원 상당의 금품과 5백73만원이 예금된 통장 등을 빼앗은 뒤 동생 앞에서 주인 최씨를 번갈아 폭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8월부터 부천시 역의 다방·가정집을 대상으로 30여차례에 걸쳐 강도·강간을 해오다가 지난 7일 새벽 3시께 인천시 북구 부평동 7다방에 침입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다방 침입 부녀자폭행

10대 낀 일당3명 구속

【인천=김영환 기자】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부천 일대 다방과

89.11.10